

중동에서 미국의 후퇴와 에너지 안보에의 영향

KIDA 선임연구원 이재준(projun@kida.re.kr)

SUMMARY

○ 중동 에너지 벨트

- 중동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벨트
- 중동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전개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 우려 증가

○ 중동에서 미국의 후퇴에 다른 권력 공백 발생

- 미국이 셰일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자체 생산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함.
-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일종의 ‘권력 공백(power vacuum)’ 현상 야기함.

○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

-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

○ 에너지 자원의 완충 효과와 탄력성

- 글로벌 원유 공급망은 위협에 대응하는 완충 효과를 갖고 있음. 이로 인해 중동 분쟁 위협에도 유가가 회복 탄력성을 가짐.
- 그럼에도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 대두

※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 위협 요인에 대응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

중동 에너지 벨트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 자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분쟁은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에너지 안보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자원 분쟁이 에너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벨트이다. 에너지 벨트 라인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 지대이다. 에너지 벨트 라인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란,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석유와 가스 매장량과 생산량 측면에서 모두 전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간다. 나아가 이 지역은 에너지 수송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이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에너지 벨트 라인을 확보하는 게 핵심 관건이다. 동시에, 에너지 벨트에 속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이 상대방 경쟁 국가들의 에너지 수송을 단숨에 끊어 질식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에너지 초크 포인트(Energy Choke Point) 기능 또한 추구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는 각 국가의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은 억제와 봉쇄라는 두 정책 기조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여기에 균열이 발생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자체 생산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된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일종의 ‘권력 공백(power vacuum)’ 현상이 벌어졌다. 중국은 이러한 권력 공백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 지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과 그 수송로 확보하기 위해 미중 패권 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 변화

미국은 냉전 이후 7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억제(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라는 두가지 정책 기조를 취해왔다. 다른 국가들이 중동 지역의 에너지 벨트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중동 내 석유 자원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 등 지역 국가들을 미국에 포섭하기 위한 공적원조(ODA)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의도는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심장부(Energy Heartland)를 확보해 ‘에너지 벨트 라인’을 완성하는 것이었다.¹⁾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공군 기지를 건설하거나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태평양과 대서양 석유 수송로를 확대 관리 운영했다. 미국은 지역 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일부 중앙아시아 스탠 국가들과 같은 친미 국가들에 미군 공군기지를 건설했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지역으로의

1) 안세현. (2014). “중동지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에 대한 분석: 미국의 에너지 벨트 구축 전략과 그 기원,”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pp. 65-101.

진출 봉쇄 정책을 지속했다. 제2차 걸프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 시점인 2003년은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가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당시는 중국이 이라크 진출을 모색하던 시점이었다. 이를 사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을 벌였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 기간 중 이라크에 자국의 무기와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²⁾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누리던 패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등장으로 흔들리게 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한다거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산에 나서는 등 미국의 개입주의에 대한 반대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중동 지역 내 기존의 동맹 관계와 압도적 패권국으로의 위상도 약화시켰다. 특히,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국제사회는 물론 중동 지역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지역 내 동맹을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란에 대한 견제는 중동 지역 동맹을 활용, 역외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미국이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동 분쟁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보인 또다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³⁾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과 함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거 철회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생산 확대와 규제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파리협정 복귀,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규제 강화, 전기차-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등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글로벌 기후 협력 레짐에서 발을 빼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화석연료는 다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자 외교적 지렛대가 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정책 변화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는 지정학적 위험을 안게 된 것이다.

2) James Normal, (2009). The Oil Card: Global Economic Warfare in the 21st Century (Walterville: Trine Day).

3) 임진희. (2020). "트럼프 시기 중동 정세 변화와 미중의 중동 정책: 미중간의 전략 경쟁 관점에서," 『중국지역연구』 제7권 제3호, pp. 213-244.

중국의 대중동 영향력 확대

문제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적 부상을 위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중동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동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섰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적, 안보적 결속을 강화해나갔다. 중동 지역 내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다시 중동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가져오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중동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중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동에서 인도양,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이르는 자국의 에너지 해상수송로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확대는 기존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이 지배하고 있던 중동 지역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격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해왔다. 에너지 안보는 중국의 공격적인 중동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중동 지역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확보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양자 및 다자 외교를 활용해 석유 및 가스 접근권을 확보했다. 2024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알제리, 이란,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와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 탐사, 무역에 관한 주요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중국은 이라크의 최대 외국 파트너로 부상해 2024년 11월 기준 해당 국가 총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활용해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서진(西進) 운동’의 일환이었다.⁴⁾ 여기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제도적 틀로 작용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석유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이런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원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걸프만 일대 국가들의 경우 국가 예산 수입의 85~90%를 에너지 자원 수출로 유지했다.

중국은 중동 국가들이 처한 이 같은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활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만약 걸프 지역 경제가 산업 다원화에 실패한다면 글

4) Jeffrey Reeves. (2025. 2. 24.). “China's Expanding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Institute for Peace & Diplomacy.

로벌 원유 수요 감소에 따라 향후 15년 내 약 2조 5,000억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중동 국가들은 원유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중동권 국가들의 개발계획은 원유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다원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이다. 이에 따라 중동 국가들은 산업 다원화를 위해 각각의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홍해 이니셔티브’, UAE의 ‘비전 2021’, 요르단의 ‘비전 2025’, 터키의 ‘중부 회랑’, 이집트의 ‘비전 2030’과 ‘수에즈 운하 개발계획’, 이집트의 ‘비전 2030’, 오만의 ‘비전 2020’, 쿠웨이트의 ‘비전 2035’ 등이 있다.

중동 국가들의 산업, 경제 개혁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중국의 중동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 미국의 세일혁명, 신에너지 비중 확대로 인해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원유 일변도 산업의 중동 국가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이 발생했고, 이런 산업 다원화는 단순한 국익 추구가 아니라 생존과 연계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동의 상황을 보면, 산업의 다원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해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야만 했다. 중동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 대신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 것이다.⁵⁾

중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다. 2024년 중국 에너지 엔지니어링, 진코솔라, TCL 중환 등 중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과 협력해 물 제조 공장,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 이니셔티브와 궤를 같이 했는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 목표를 지원한 것이다. 중국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넷 제로 2050 전략’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협력 사업은 시진핑 주석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왕세자의 2024년 6월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했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중국의 세력 팽창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다시 미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BDN)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정상회담 중에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와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⁶⁾ 블루 닷 네트워크는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⁷⁾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일본 국제 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5) 이창주, 백승훈 (2021).

6) 이창주, 백승훈. (2021). “중동 지역 내 미중 전략경쟁구조 분석: 아브라함 협정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31권 제1호, pp. 29-60.

7) Abhishek Kumar. (2020). “Blue Dot Network’: Idea, Objectives and Implications for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Novel Research in Humanity and Social Sciences, 7(4), 33-39.

Cooperation, JBIC), 호주 외교통상부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⁸⁾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공급망은 중국의 국가 경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추진했고, 그것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남아 있는 문제는 에너지 수송로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동 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는 중동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이다. 중국은 향후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말라카 해협, 롬복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만일 이들 해상교통로가 통제된다면, 석유,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기 어렵다.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파이프라인 4개,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1개, 미얀마-중국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LNG를 수입하고 있다. 2022년에는 러시아 사할린섬에서 새로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⁹⁾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 전체 가스 수요의 17%를 충족하는 데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반면 선박으로 운송되는 천연가스는 수요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따라서 중동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5년 6월 12일간 지속된 이란-이스라엘 전쟁 이후, 중국은 이란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용히 가속화했다. 2025년 6월 10일 이란의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중국의 쿵페이우(龐培武) 주이란 대사가 2021년 체결된 '25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 또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린 2025년 9월 2일, 이란의 마수드 페제쉬키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자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이란의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2025년 5월, 이란의 사타르 하셰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중국 측 상대와 만나 인공지능, 스마트 산업, 통신 인프라 분야의 합작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 2025년 7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주권에 대한 강력한 상호 보장, 힘에 의한 정치에 대한 반대,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서구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¹¹⁾

8) Jagannath P. Panda. (2020). "India, the Blue Dot Network, and the Quad Plus Calculus,"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3(3), 1-22.

9) Chen Aizhu. (2022. 2. 4.). "Russia, China Agree 30-Year Gas Deal via New Pipeline, to Settle in Euros," *Reuters*.

10) Reuters. (2023. 5. 24.). "China's Main Import Gas Pipelines,"

11) Pierre Pahlavi. (2025. 9. 26.). "China's Long Game in Iran's Short War."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에너지 공급망의 탄력성

에너지 공급망이 미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여러 지정학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에너지 자원이 갖는 완충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전이 분포된 지역이 중동 지역에 집중되기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해저 유전 등으로 분산되어 중동 지역에 발생하는 분쟁에 따른 위험에 대한 완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동 분쟁으로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원유 가격이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석유 자원의 산업적 특징은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위험에 대응하는 완충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동 분쟁 위험에 대해 유가가 일정 부분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 러-우 전쟁이 격화되고 OPEC이 생산을 감축하며 러시아 석유가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세계는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 등에서 기록적인 석유 생산이 이뤄졌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도 하루 약 50만 배럴을 생산했다. 실제로 국제 원유 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산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¹²⁾

천연가스에서도 유사한 완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연가스 수요는 변동성이 크면서 공급은 탄력성을 갖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것이다. 2020년 EU 27개국과 영국에 공급된 전체 천연가스는 약 20%이다. 다만, LNG 수입량은 연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3.6 Bcf/d에서 2019년 10.1 Bcf/d까지 변동하였으며 이러한 변동성은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추운 날씨로 인한 수요, 파이프라인 공급량 가용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에 공급되는 LNG의 대부분은 장기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에서 주로 공급되는 LNG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의 LNG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¹³⁾ 일반적으로 미국 LNG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적 함의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 교란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석유화학산업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

12) Keith Johnson. (2024. 1. 18.). "Why the Red Sea Crisis Hasn't Hit Energy? Yet." *Foreign Policy*.

1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2).

안보에서 우선 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다. 그로 인한 에너지 자원 공급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원유 수입 의존도를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산업적 특징인 완충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석유는 생산 지역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천연가스는 공급량이 수요에 따라 연동되는 탄력적인 특징을 갖는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처를 더욱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된다. 중동정세의 불안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동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해상교통로(SLOC)가 봉쇄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유조선이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은 잦은 해적들의 출몰로 인해 석유 수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파이프라인이 아닌 해상에서 운송되는 LNG의 비중 증가는 전세계적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해상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 안보 전략 수립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적극적인 에너지 안보 협력도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에너지 자원을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인식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원고 인용 시 저자. (발행년도). 「원고제목」 『KIDA 안보전략 FOCUS』. 한국국방연구원. 형태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